



주간통일정세 2008-36(2008.09.01~09.0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3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뇌졸중 가능성(9/9, AP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 기념행사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뇌졸중(stroke)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AP 통신 등이 미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9일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이 정보당국자는 “김 위원장에게 건강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아마도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은 최근 2주 이내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 김정일, 9·9절행사 불참…의혹 증폭(9/9,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은 정권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의 군사퍼레이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거와는 달리 오후에 정규군이 아닌 노동적위대와 평양시민들만의 열병식을 갖는 방식으로 축소했고 평양 시내 퍼레이드도 열리지 않았음.
- 조선중앙TV는 오후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이어 9시부터 열병식을 녹화중계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열병식에선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이 열병보고를 했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단상에 모습을 드러냄.
- * 김정일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이 8월 14일 보도한 제1319군부대 방문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치료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 등의 의료진이 방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김 위원장은 2007년 5월 초순 심근경색 증세때문에 독일 심장재단 의료진으로부터 막힌 동맥 1개를 뚫어주는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심장병과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체력 저하 등 노화 증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8월에 쓰러져” 첩보(9/9, 9/6, 조선일보)

-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 22일 (건강 악화로) 쓰러졌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본부(외교부)에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첩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힘. 이 관계자는 이 첩보를 중국 측 소식통으로부터 입수, 자세한 사실을 확인 중이며 북한 내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



나. 정치 관련

- **北5대기관, 반미 대결전 최후승리 이룩할 것(9/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등 5대 주요 기관들은 9일 “미제의 침략 책동에 대처해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적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선군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다진 위력한 잠재력을 총동원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겠다”고 강조
 - 당중앙위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9일 연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9·9절 축하문에서 김 위원장의 '선군영도'로 “공화국(북한)의 최고 이익과 민족의 생존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마련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어 축하문은 “내외 분열주의 세력들의 반공화국, 반통일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 강토 위에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겠다”고 덧붙였다.

- **9·9절 이례적으로 오전 행사 없이 진행(9/9, 연합)**

 - 북한이 9일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행사가 당초 예상과 달리 오전에 열리지 않은 가운데 오후부터 행사 개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오전에는 열병식 등 준비된 행사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오후부터 모종의 행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음.
 - * 북한은 종래 유사 행사 때는 오전에 열병식과 퍼레이드, 오후에 무도회와 횃불행진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번엔 이례적인 동향
 - 이에 따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 언론 매체들도 9·9절관련 대규모 행사에 관한 것을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음.

- **北, 정권수립 60돌 행사로 ‘들썩’(9/7, 조선중앙방송)**

 - 북한 정권 수립 60돌(9.9)을 맞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전역에서 ‘경축 분위기가 고조,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각종 전시회와 공연, 경축모임이 붐몰을 이루는 가운데 북한과 친교를 맺고 있는 외국의 축하사절들도 속속 평양에 도착
 -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공관 가운데 베트남(2일), 팔레스타인(4일), 쿠바(5일) 대사관 등도 잇따라 북한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축하 연회’를 개최
 - 외국의 축하 사절로는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대표단,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에니케 로만 에르난데스 쿠바 제(諸)인민간 친선협회 제1부위원장, 키르기스스탄 대외친선협회연맹위원장, 파키스탄 자력갱생



연구협회 서기장,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을 도왔다는 중국인 장올화 가족, 석명손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축하단, 남승우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 등이 5~6일 평양에 각각 도착

● **北, ‘인천상륙작전 재현행사’ 비난(9/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해병대가 9월 9일 인천 월미도에서 인천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가진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행사는 “엄중한 민족 반역행위”라고 6일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해병대의 이번 행사에 “대형 수송함과 상륙함, 수십대의 상륙장갑차와 비행기, 많은 병력이 동원”되는 만큼 “실제상 상륙작전”이라며 이같이 주장

● **北김영남, 남측이 강한 신호 보내야(9/5, 연합)**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가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남측에서 “강한 신호를 보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하원의원이 5일 밝힘.
- 코쉬크 의원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5일 자신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남북 화해 노력을 후퇴시켰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언, 평양을 방문 중인 코쉬크 의원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남측에서 우선적으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또 남측이 그런 의지를 보이면 남북 간 화해 실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 통일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언

● **北 인권문제 제기는 반공화국 소동(9/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남한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미국의 반공화국(반북) ‘인권’ 공세와 곡조를 같이”하면서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 수행에서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
- 통신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남한 정부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동족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취하고 북남관계를 대결어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준치를 들어 “오늘날 인권문제가 실지 존재하는 곳은 남조선”이라고 덧붙임.

● **北, 내달 또 당세포비서대회 개최(제204호, 오늘의 북한소식, 9/4, 연합)**

- 북한은 식량난에 따른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노동당 말단 책임자들 대부분이 참석하는 ‘전국 당세포비서대회’를 10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4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04호를 통해 이번 대회에 세포비서 1만여명이 참석한다면서 14년만에 열린 작년 당세포비서대회의 7천여명을 넘



어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북한이 이 집회를 갖는 것은 “식량사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소식지는 말하고 “조직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세포비서들의 역할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당원을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을 통제하거나 설득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당세포비서대회를 열고 당원과 근로자들을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토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강화를 당부

● 北조평통, 여간첩 사건은 날조 모략극(9/3,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3일 담화를 내고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자료를 가공, 날조한 완전한 모략극”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원정화와 관련해 “문제의 ‘여간첩’으로 말하면 우리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짓고 도망친 범죄자이며 돈과 변태, 협잡에 미친 인간추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가 북한에서 중학교를 나와 사기와 절도로 “법적 제재”를 받고 “오래 전에 불법 월경해 남조선(남한)으로 도주했다”고 주장
- 또 원정화의 계부 김모씨에 대해서도 “이붓애비(계부)라는 자 역시 공화국(북한)에 있을 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려 수십 번이나 직장을 옮기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무직 건달자로서 조국과 인민을 등지고 도망간 인간쓰레기”라고 주장
- 대변인은 남한 당국에서 발표한 원정화의 활동 자료도 “엉터리 없는 날조”라며 “여간첩이 탐지해냈다고 하는 ‘정보’와 ‘군사기밀’이란 남조선에서 인터넷(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들”이라고 주장

● 北, 정권수립 60년 “일심단결” 강조(9/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북한 정권수립 60돌(9.9)을 앞두고 “우리 공화국(북)의 역사는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온 역사”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거듭 강조, 신문은 또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지 않은 단결, 실무적인 담합은 오래 갈 수 없다”며 고 김일성 주석이 제시했다는 주체사상과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 지도적 지침”으로 받들 것을 주문
- 이어 신문은 “선군의 기치 높이 전진해온 지난 10여년간은 영도자(김정일)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혁명 대오의 일심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철통같이 다져지고 그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긍지 높은 연대기였다”고 자평



- **北, 이란 로켓발사 옹호(9/3,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3일 이란의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은 이란의 “자주적인 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비난
- **선군혁명 대중운동 독려(9/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9.9)을 앞두고 “조선(북한)에서 선군혁명 총진군의 거세찬 열풍이 일어 번지고 있다”며 이는 “선군사상의 기치밑에...강성대국의 높은 영마루(정상)를 점령하기 위한 선군시대의 전 인민적 대진군 운동”이라고 언급
 - 통신은 2일 ‘선군혁명 총진군은 선군시대의 전인민적 대진군 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또 “혁명과 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려면 강력한 군사적 힘이 마련돼야 한다”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선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혁명적 진군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
 -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10년을 맞았다는 2005년 2월 ‘선군혁명 총진군 대회’를 개최했었음.
- **北, 美셔먼호 격침일 맞아 ‘반미’ 강조(9/2,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조선중앙방송은 ‘침략선 셔먼호를 격침시킨 조선민족의 기개’라는 방송프로를 통해 “미제는 자기의 침략적 본성을 버리지 않고 오늘날 전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침략전쟁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며 “미제 침략자들은 셔먼호 사건에서 교훈을 찾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남한)에서 저들의 침략 무력을 걷어 가지고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청진 시장서 단속원과 여성들 또 마찰(제206호, 오늘의 북한소식; 9/9, 연합)**
 - 북한의 함북 청진시장에서 단속원과 장사를 하던 여성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으며,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식량이 공급될 때까지 단속을 느슨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9일 보도
 - 이에 따라 청진시 당국은 8월 26일 긴급 소집된 도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이 사건을 보고한 뒤 각 구역 보안서와 시장관리소에 “10월 배급을 줄 때까지 단속을 세게 하지 말라”는 구두지시를 내렸다고 소식지는 보도
 - 소식지는 한편 함북 회령시와 청진시 등에서 ‘비사회주의그루빠(그룹) 검열’이 시작됐다면서 “중국에 도강한 세대와 남조선에 내려



간 가족이 있는 세대 등은 이유 불문하고 다른 지역으로 집단이주시킬 예정"이라고 알려짐.

● **노동신문, 국방공업 발전 최우선(9/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북한 정권 수립 60돌을 맞아 “군민(軍民) 단결”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나라의 전도는 그 어떤 자연부원(부존자원)이나 경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정치적 기반(기반), 당과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공고성에 의해 좌우된다”며 “자기 영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힘,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군민단결’을 거듭 강조

● **北총리, 경제강국 건설 가장 중요한 과업(9/9, 조선중앙TV)**

- 김영일 내각 총리는 8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해 우리나라를 21세기의 사회주의 경제강국으로, 인민들이 부러운 것이 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건설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
-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권수립 60주년(9.9)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우리 당은...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웅대한 목표를 제시했다”며 이렇게 강조한 뒤 “우리는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건설을 정상화, 활성화하며 농업혁명,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식량문제, 인민소비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겠다”고 촉구
- 김 총리는 남북관계와 관련,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세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만 강조
- 행사장에는 최태복·김중린 당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격식 군총참모장, 박범기 내각 부총리,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

● **노동신문,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자랑(9/8, 노동신문)**

- “한 나라가 당할 수 있는 온갖 풍상고초를, 한 국가의 생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최악의 시련을 다 이겨낸 우리에게 이제 더는 무서운 것이란 없게 되었다.” 노동신문은 북한 정권 수립 60돌(9.9)을 하루 앞둔 8일자 3면 전면에 실은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조선이여!’라는 ‘정론’에서 지난 기간 북한의 원수들이 “별의별 도발과 악착한 봉쇄



와 제재를 가하며 우리 제도의 안전과 인민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했으나 북한이 살아남았다며 이같이 주장

● **글로벌 인사이트, 北국가위험도 하향 조정(9/6, 미국의 소리(VOA) 방송)**

- 세계적인 민간 시장예측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가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국가위험등급이 올라가게 되었음.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일 “미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 인사이트는 4일 북한의 중기국가위험등급(Medium-term Sovereign Risk Rating)을 85점에서 80점으로 조정했다”고 밝힘.
- 글로벌 인사이트의 덴 라이언 조사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한국 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 GDP의 5% 미만으로, 과거 10%를 웃돌았던 때보다 크게 줄었다”며 “대외적자가 줄면 빚을 갚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위험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 “지난해 북핵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이뤄졌을 때부터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봤다”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 신고서 제출, 이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금 해제 검토 등 북한의 외부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있어 조정을 확정했다”고 강조
- * 국가위험도는 한 나라가 돈을 빌렸을 때 되갚지 않을 위험을 계산해 등급화 한 것으로 글로벌 인사이트는 0~40점은 투자 등급, 45~65점은 투기 등급, 70~100점은 채무불이행 등급으로 분류

● **美 대북 지원식량, 4차분 北 도착(9/5, 미국의 소리(VOA)방송)**

- 미국이 북한에 1년간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가운데 4차 지원분인 옥수수 2만4천500t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5일 보도
- 3만7천270t의 밀이 지난 6월 29일 북한에 첫 도착한 이후 8월 4일과 20일 각각 2만4천t의 옥수수와 3만2천500t의 옥수수에 이어 최근 4차분이 도착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식량은 총 11만8천 270t으로 집계됨.

● **북한에서도 청바지 생산(9/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의 퇴폐적 생활 풍조’라며 주민들의 착용을 금지한 청바지가 내년부터 북한 내에서 스웨덴 기업의 위탁으로 생산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평양 도심 모란봉에서 양봉(8월호, 조선)**

- ‘조선 8월호에 따르면 평양 한복판인 모란봉 꽃밭에 인근 공장·기업소들이 저마다 꿀 채취를 위해 벌통을 설치하여 꿀을 채취한다고 소개, 여기서 생산된 벌꿀은 꽃 종류에 따라 ‘왕벌젓꿀’, ‘삼지구엽초꿀’



등의 상표를 달고 판매

● **자강도 강계폐지공장 준공(9/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시찰했던 자강도의 강계폐지공장이 3일 박도춘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최기룡 도 인민위원장, 김인남 도 농촌정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4일 보도

● **北, 대계도간석지 3개 방조제 복구 완료(9/4, 조선중앙방송)**

- 1997년 북한의 서해안 일대를 휩쓴 해일로 크게 파손됐던 평안북도 '대계도 간석지'의 4개 방조제 중 3개의 복구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짐. 조선중앙방송은 4일 "1호 방조제가 강한 해일에도 끄떡 없이 만년대계로 훌륭히 완공"됐다면서 "앞으로 3호 방조제와 간석지 내부망 공사를 다그쳐 끝내고 많은 면적의 부침땅을 얻어낼 수 있게 됐다"고 보도

● **北 '9·9절' 맞아 상품공급 주력(9/3, 조선중앙방송; 조선신보)**

- 북한이 정권수립(9.9) 60주년을 맞아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에 주력, 조선중앙방송은 3일 남포시 "여러 상업봉사단위들에서"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 정상화에 주력해 "매대들이 흥성거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또 시에서는 해안도시의 특성에 맞게 수산물 공급사업의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고 김장용 야채공급을 비롯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 조선신보도 3일 '9·9 앞둔 평양'이라는 평양발 르포 기사를 통해 운동화 생산 전문공장인 평양시 만경대구역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된 새로운 형태의 운동화가 정권수립 60주년에 즈음해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고 소개

● **北, 쌀값 재앙등 단속 강화(제203호, 오늘의 북한소식; 9/3, 연합뉴스)**

- 북한에서 내림세였던 쌀값이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자 함경남도 함흥시에서는 쌀 kg당 북한돈 2천700원 이상에 거래될 경우 단속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03호는 "함흥시에서는 시장에서 쌀 kg당 2천700원이 넘어가면 즉각 회수함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면서 "시장관리소 소장파 시 인민위원회 가격과(課) 부원, 구역 당 간부들이 일부 장사꾼들이 쌀값을 올린다는 제보에 따라 시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 한편 북한 노동당은 최근 "간부들의 생활품조가 남조선식을 많이 본따고 있다"고 보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불법 녹화물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식지는 보도



● 北, '비사회주의적'이라며 개인수공업자 단속(9/1, 연합)

- 북한 평안남도 강서군 보안 당국이 8월 1일부터 주민들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개인 수공업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일 보도
- 평남 강서군은 '모조품 생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전역에서 개인 수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라고 소식지는 설명, 이번 단속에선 특히 하루 품삯을 4천원씩 주고 15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국영 공장에서 불법으로 자재를 빼돌려 모조품을 생산해온 강서군민 최용철씨가 주요 타깃이 됐다고 소식지는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집 떠났던 北주민들 추수기 맞아 귀향(9/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집을 떠났던 주민들이 추수기를 맞아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 귀향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버나드 코클린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중국사무소장의 말을 인용 보도

● 정권수립 60주년 기념주화 발행(9/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금화와 은화 두 종류의 기념주화를 발행,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6일 '공화국 창건 60돌' 맞으며 기념주화를 발행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정령을 발표하고 "기념주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은 금화와 은화로 발행할 것"이라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 北, 정권수립 60돌 행사로 '들썩'(9/5, 9/4, 9/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권 수립 60돌(9.9)을 맞아 '김일성화(花)·김정일화' 전시회가 5일 평양시내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관'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막식에는 최태복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강능수 문화상 등이 참석
- 5일 김일성경기장에서는 '60돌 경축' 체육경기가, 조선우표전시관에 서는 우표전시회가 각각 개최
- 4일 전국산업미술전람회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같은날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는 북한 내외에서 발행된 2만9천100여 종 3만300여 권의 도서와 잡지가 전시된 국가도서전람회가 개막됐고, 김일성 부자의 업적을 선전하는 영화들을 평양과 각 지방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상영순간(旬間)' 개막식도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열렸다고 통신은 보도, 또 주체사상탑광장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정권 수립 60돌 경축모임도 개최
- 3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평양시 근로자들의 예술소조 종합공연이 진행됐고,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있는 만수대 언덕에서는 노동



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도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 **北, 시인 등 ‘애국열사릉’ 안치(9/5,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최고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김철 등의 유해를 남한의 국립 묘지격인 애국열사릉에 안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통신은 김철 외에 최하택 만수대창작사 유화창작단장, 오태용 조선 기록과학영화촬영소 연출가, 리학범 만수대예술단장, 최학수 4.15문 학창작단 작가 등도 함께 안치됐다고 보도
- **北여자 탁구계, ‘차세대 기대주’ 김정(9/4, 조선신보)**
- **北축구해설가, 남북전 격전 예상(9/4, 조선신보)**
- **北, 백두산 천지에 화산관측소 설치(9/3, 조선중앙TV)**
- **‘대항소상’ 씨름대회 곧 개최(9/3, 조선중앙TV)**
 - 북한관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인 제6회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대 회가 추석을 맞아 오는 13~17일 평양시 룡라도 씨름경기장에서 열 린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
- **北소학교서 컴퓨터. 영어 정규수업 시작(9/3, 조선신보)**
 - 북한 전역의 소학교(초등학교)에서 컴퓨터와 영어과목이 3학년부터 정규과목으로 개설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감. 조선신보는 3일 “(북 한) 전국의 소학교들에서 컴퓨터, 영어과목에 대한 수업이 1일 일제 히 진행됐다”며 “올해부터 조선(북)에서는 컴퓨터와 영어를 소학교 단계의 정규과목으로 정하고, 3학년부터 배우게 된다”고 소개
- **평양국제탁구대회 北 남녀 단체 우승(9/1, 조선중앙통신)**
- **北에서도 건강보조식품 인기(9/1,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각종 한약재와 산삼, 벌꿀 등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보조식 품이 근로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北입장 재확인한 韓·美·中·日 대표회동(9/7, 연합)**
 -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북핵 6자회담 4개국 수석대표들이 5~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연쇄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에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강경 자세로 돌아선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한 채 끝이 남.

- 한국과 미국, 일본 수석대표가 5일 베이징에 집결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이 잇따라 회동했지만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6일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던 북한 측과의 회동은 결국 무산

● 정부 당국자, 北핵시설 봉인제거관련 정보 無(9/6,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붙여놓은 봉인을 제거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한 것과 관련, “그런 정보가 없다”고 언급, 외교 당국자는 “북한이 봉인을 제거하는 등 추가 조치에 들어갔다는 정보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핵시설 복구 움직임이 보다 분명해진 것”이라고 해석
-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이 이미 핵시설 복구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하루 이틀만에 물러서진 않을 것”이라며 “얼마 동안은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전망

● 北, ‘검증 사찰’ 수용하지 않을 것(9/6, 조선신보)

- 북한은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위해 미국이 ‘국제적 기준’을 내세워 요구하고 있는 “사찰”을 받을 의무도 없고 이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6일 주장
- 조선신보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8.26)의 ‘핵시설 복구 고려’ 성명 이후 북한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에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공표한 것만큼 조선(북) 정부는 검증문제에서 국내여론과 배치되는 안일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여론에 대해 “인민들은 오히려 미국의 검증요구를 자주권 침해행위로 단정하고 핵억제력을 놓고 미국과 흥정하는 일은 없다고 확인하는 나라의 위용에 긍지와 자부를 느끼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북한)인민들은 처음부터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밝힌 두번째 대응조치(핵시설 원상복구 고려)에 주목”했고 “조선이 6자합의 이행과정을 되돌리게 될 (두번째) 대응조치에 대해 부득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이 6자구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강도적 요구를 내세기 때문”이라고 강조, 북한의 불만이 테러지원국 해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 보다는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체계에 있음을 시사
- 신문은 이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검증”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했고 IAEA 회원국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 특히 9·19공동성명 직후 “미국이...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조선에 대해...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은 말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

- 신문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연다”는 것은 북한의 공식화된 목표이고, 2012년의 전망은 “선군노선에 의해 경제건설의 안정과 평화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는 논리로 설명된다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노력을 단순히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나 경제적 지원” 차원이 아닌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조건보장”과 “환경조성”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

● IAEA, 北 핵시설 핵심장비 제거(9/4, 연합)

-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이전에 핵시설의 ‘핵심’ 장비들을 이미 제거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3일 발표, IAEA는 보고서를 통해 IAEA 감시요원들이 핵 연료봉 등 중요 장비들의 제거 과정과 보관 상태를 지켜봤다면서 일부 물질들은 아직도 감시 하에 있다고 설명
- IAEA 이사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내 실험용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봉(폐연료봉)’중 절반 이상이 인출된 뒤 IAEA 요원의 점검을 거쳐 수조에 보관돼 있다면서 “이들 연료봉들과 원자로에 남아 있는 연료봉들 모두 IAEA의 감시하에 있다”고 밝혀 북한이 원자로를 원래 가동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

나. 북·미 관계

● 북·미 ‘영변의 시료채취’ 놓고 막판 협상중(9/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과 미국은 현재 영변 이외 핵시설에서 시료채취 문제를 놓고 막바지 협상 타결을 시도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직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5일 보도

● 北, 핵시설 복구방침 美에 사전통보(9/4, 연합)

- 북한은 불능화가 진행되던 핵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을 개시하겠다고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2일 영변 현장에 머물고 있는 미국요원들에게 핵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구두로 통보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도 당일 늦게 미국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발표
- 이 당국자는 핵시설 복구 개시의 판단근거와 관련, “불능화 작업시에 제거해 창고에 보관했던 장비들을 옮겨서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됐다”고 설명하고 “냉각탑 폭파 이후 그동안 잔해가 그대로 있었는데 그 잔해들을 청소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소개



- **美하원 아태소위원장, 3일 개성공단 방문(9/2, 연합)**
 - 방한 중인 애니 팔레오마베가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3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 정부 당국자는 2일 “팔레오마베가 소위원장 측이 방한 기간 개성공단 방문을 희망, 정부가 개성공단관리 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방문 신청서를 접수시켰고 북측이 동의서를 발급했다”고 발표
 - 팔레오마베가 소위원장은 3일 오전 방북, 개성공단에서 공장들을 돌아보고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귀환할 예정

다. 북·중 관계

- **자칭린, 北대사관서 북한 건국 60주년 축하 (9/8, 신화통신)**
 -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북한 건국 60주년 기념일(9.9절)을 하루 앞둔 8일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경축 행사에 참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자칭린 주석의 이 경축 행사 참석에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연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에게 공동으로 축전을 보냄.
- **중, 북한정권 60돌 기념 연회 개최(9/6, 조선중앙방송)**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북)우호협회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 대사, 리진화(李金華)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 부주석, 류홍차이(劉洪才)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정권 60돌을 기념하는 연회를 개최
- **중기상국, 北에 설비 기증(9/4, 조선중앙통신)**
 - 중국 기상국에서 북한에 설비를 기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통신은 “세계기상기구(WMO)의 긴급 자연재해 협조계획과 자원적 협조계획에 따라 조선 기상수문국에 중국 기상국에서 설비들을 기증했다”고 보도
- **중국, 북한행 단체 관광 허용(9/3, 연합)**
 - 중국 정부가 북한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함. 중국 국가관광국은 2일 북한을 방문 허가 지역으로 승인했다고 발표
 - 북한으로 가는 단체 관광은 “양국이 세부 내용을 협상하고 공식 합의에 서명한 뒤 적절한 시점”에 시작된다고 국가관광국은 설명
 - 강철수 북한 조선관광총국 부국장은 중국을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국가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광 촉진과 인력 훈련같은 분야에서 중국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라. 북·러 관계

● 러시아-北 철도연결사업 10월 3일 개시(9/8, 연합)

- 러시아철도공사(OAO.러시안 레일웨이스)가 오는 10월3일 북한-러시아간 철도현대화사업을 개시
- 이 사업은 한반도와의 철도 연결을 위해 러시아측 접경의 52km 구간의 철로 공사와 북한 측의 나진항에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9일 이메일을 통한 성명에서 밝힘.

● 러 투자사, 북한진출 위해 자동차 제공(9/2, 자유아시아방송; 8/25, 러시아소리방송)

- 최근 러시아 자동차회사 아프토바즈가 북한에 라다 승용차 850대를 공급기로 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보도한 것은 실제론 러시아의 투자회사가 북한 진출을 위해 이 승용차를 무상제공기로 했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짐.

마. 북·일 관계

● 北, 日 아소는 강경우파 대표인물, 경계심 표출(9/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일본의 차기 총리로 아소 다로(麻生太郎) 자민당 간사장이 유력시 되고 있음을 밝히고 그에 대해 "강경우파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냄.
- 통신은 2007년 9월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후쿠다 총리가 사임하게 된 것은 잇따른 정책 실패와 국민들의 불신에 따른 지지율 하락, 차기 중의원 선거 승리 등 "앞으로 있게 될 정치적 고비들을 무난히 넘기려는 것"이 배경이라면서 "앞으로 일본에서 권력쟁탈을 위한 당파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

● 日 교토통신 사장 방북(9/6, 조선중앙방송)

- 이시가와 사토시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교토통신사 대표단이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 日에 납치문제 재조사 연기 통보(9/5, 연합)

- 북한이 북일 관계 현안인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 일본측에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이 5일 발표
- 고무라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새로운 정권의 방침을 지켜보기 위해 설치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4일 받았다고 밝힘.

● 北, 日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표기'는 재침선언(9/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4일 일본 방위성이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넣기로 한 것은 “노골적인 재침 선언”이라고 규탄

● **日 후쿠다 사임 논평없이 보도(9/4,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4일 “일본 수상 후쿠다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식 사임을 발표했다”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사임 소식을 별다른 논평없이 짤막하게 보도

바. 기타외교 관계

● **주북 쿠바 대사관, 9.9절 축하 연회 개최(9/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 쿠바 대사는 5일 대사관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박의춘 외무상, 리용남 무역상, 김용진 교육상, 김태종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을 초청한 가운데 북한 정권 수립 60돌(9.9)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몽골친선 컴퓨터센터 개관(9/6, 조선중앙통신)**

- 몽골·조선(북한)친선컴퓨터센터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설립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몽골·조선친선컴퓨터센터 개관식은 몽골의 ‘유목민발전지지 즈·쌈부기금’, 국가대회의, 외무성, 몽골·조선친선협회 인사들, 몽골주재 북한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9일 개최

● **김영남 독일연방의회 의원 만나 환담(9/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연방의회(하원) 의원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악단, 英공연 무기연기…신용경색 여파(9/4, 자유아시아방송)**

- 9월 중순 예정됐던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이 재정문제로 무기 연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방송은 북한 당국이 관심을 보여온 이 악단의 미국 공연도 미국내 정치 상황때문에 2009년 중반까지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보도
-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 무기연기는 당초 72만달러로 예상되는 재정을 후원기로 했던 영국의 신용경색 때문에 후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임.

● **주북 베트남대사 연회 개최(9/2, 조선중앙통신)**

- 레 반 크 북한 주재 베트남대사가 2일 베트남 독립 63돌을 기념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라오스 총리, 방북마치고 출국(9/2, 조선중앙통신)**

- 부아손 부파방 라오스 총리가 2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공항에선 북한의 김영일 내각 총리와 리용남 무역상, 리경식 농업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이 부아손 총리 일행을 환송
- 김영일 총리의 초청으로 8월 30일 방북한 부아손 총리는 같은 날 김영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협조공동위원회 창설 협정'을 맺음.
- 부아손 총리는 평양시 룡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고 서해감문, 3대혁명전시관, 만수대창작사, 평양지하철도, 평양326전선공장 등을 둘러봄.

● **北, 9.9절기념 독일과 중국서 미술전람회 개최(9/2, 조선신보)**

- 북한 내각의 문화성은 정권 수립 60주년(9.9)을 기념해 독일 베를린과 중국 베이징에서 미술전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베를린에서 북한 미술품들로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조선화와 유화, 판화, 포스터 등 150여점이 전시
- 베이징 전람회에도 북한의 유명 화가들이 그린 조선화와 유화 등 60여점이 전시된다. "조선(북한)과 중국은 지난 시기에도 기념일을 계기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미술전람회를 진행해 왔다"고 신문은 설명

3. 대남정세

● **당정, 내달 중 북한 식량지원 검토(9/7, 연합뉴스)**

-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월 중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짐. 앞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9월 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 축사에서 "앞으로 인도주의적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식량지원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식량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하거나 직접 지원, 또는 차관 형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당정은 북한이 1년간 필요한 식량이 500만여t이나 지난해 생산량이 403만t에 그치는 등 해마다 100만t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
- 통일부는 WFP가 우리 정부에 2천만~6천만 달러 수준의 식량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WFP를 통한 경우 인건비를 포함해 행정비용이 15~20% 가량 들어 직접 지원보다 효



2일 이명박 정부가 “신(新)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각 계층의 평양 방문길을 차단하고 있으며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

- 대변인은 담화에서 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과소적 폭거”라면서 이는 남한의 현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가 조금도 없는 반통일 집단”임을 보여준다고 주장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힐 “검증방법 동의 후 즉각 테러지원국 해제”(9/7)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6일 미국은 북한이 검증 방법에 동의한다면 테러지원국을 곧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힐 차관보는 이날 오후 6자회담 의장이자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베이징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초점은 검증 프로토콜(요구안)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면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즉시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검증 프로토콜 문제와 관련, “북한의 현재의 핵 활동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재가동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징후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북한 기술자들이 핵시설 장비 일부를 이동시킨 것은 알고 있지만 영변 핵 시설 재가동은 단순한 일이 아니며 1년 이상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이런 행동은 북한이 검증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 없는 신고는 젓가락 한 짝과 다름없다”면서 검증 프로토콜 수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 “北, 핵 봉인 제거..복구 새 증거”<폭스뉴스>(9/6)

-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에 붙여놓은 봉인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확인됐다고 미국의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5일 보도. 폭스뉴스는 이날 두 명의 미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 한 관리는 “북한은 그 시설을 재결합하고 있는 게 분명하며, IAEA의 봉인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봉인을 제거한 뒤 파이프와 밸브 등을 삽입하고는 봉인들을 제위치로 돌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또 “핵 재처리 시설로부터 제거된 설비들은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고 있다”며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핵 불능화를 위해 취해온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불능화(reversible disablement)’”라는 미 관리들의 말을 전했다.
- 북한의 동기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항의로 보인다고 폭스뉴스는 보도. 폭스뉴스는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시간상으로 공포(panic)를 느낄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 관리들은 추가 조치에 따라 앞으로 6~8주 이내에 플루토늄 생산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韓美日 6자대표, 北과 회동 무산(9/6)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5일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집결했지만 북한 측과의 회동은 결국 무산됐음.
-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북한 고려항공편 정기운항일인 6일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석대표들이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움직임 이후 이뤄진 첫 중국 방문에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북한과의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김계관 부상이 방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북한이 이미 강경 태도로 돌아선 이상 김 부상이 협상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한·미·일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날 오전 각각 6자회담 의장이자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중국에 요청.
-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우 부부장과 한중 회동을 갖고 강경 태도로 변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숙의했음.

● 韓美日 6자대표 긴급회동…中에 중재 요구(9/6)

-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5일 북한의 핵불



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관련, 베이징에서 연쇄 회동을 갖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중재역할을 요구하기로 했음.

-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북핵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미일 3개국 수석대표들이 양자회동과 3자 만찬회동을 잇따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김 본부장은 “먼저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복구 움직임에 우려를 같이 하고 성급한 과잉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양자회동을 갖고 6자회담 과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긴밀한 공조 속에 비핵화 과정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말했음.
- 그는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핵 검증 의정서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하고 “특히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강조.

● 힐 “검증 없는 신고는 반쪽짜리”(9/5)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5일 “검증 없는 신고는 절반의 의무 이행에 불과하다”고 말했음. 힐 차관보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 프로그램의 검증은 신고의 일부이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들은 모두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북한이 검증 프로토콜(요구안)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검증 프로토콜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도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검증 프로토콜의 수용을 거듭 촉구.
-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핵 복구 대응 논의 시작(9/5)

-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베이징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북한의 핵 불능화 복구조치 발표 이후의 한·일간 공조방안 모색에 들어갔음. 이어



과 3개월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

-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와 일본 언론의 보도 등을 인용해 북한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해석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
- NYT는 북한이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의 유일한 수단으로 알려진 주요 핵시설의 재조립을 시작했다고 한국정부가 발표했으나 미국은 이런 북한 행동의 심각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

● 中 ‘북핵사태’ 책임소재 즉답 회피(9/4)

- 중국 외교부는 4일 최근 교착 국면을 맞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해 즉답을 회피했음.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문제가 교착 국면을 맞게 된 원인이 북한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발생한 문제는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극복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각국과 교류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대답해 책임 소재에 관해 비껴갔음.
- 장 대변인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5일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힐 차관보의 중국 방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라이스 “北 의무사항 준수 기대”(9/4)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3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사항(핵불능화)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간 (6자회담) 프로세스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라이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이번 행동이 6자회담 과정에 일시적인 시련을 줄 수는 있어도 파국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또 라이스 장관은 “우리는 (북핵 불능화에 있어서) 계속 진전을 봐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신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계를 완성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파트너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핵시설 복구시도..美 테러지원국 해제 않을듯” <美전문가>(9/4)

-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3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년에 북미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스트



로브 전 한국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상황이 위기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

● **김 숙-힐 5일 베이징서 회담(9/4)**

-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핵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오는 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 당국자는 “지금 북한 핵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한국과 미국)는 과잉대응을 해서는 안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김 숙 본부장과 힐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만나 현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 일부 핵설비 이동..핵시설 복구 시도 아닌 듯”<미 국무부>(9/4)**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저장돼 있던 일부 설비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지만 핵시설 복구를 시도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손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현지에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때 옮겨진 이 설비들을 재건하거나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美국무 대변인 “北, 영변 핵시설 복구 미착수”<로이터>(9/4)**

- 미국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北, 핵시설 복구방침 美에 사전통보”(9/4)**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2일 영변 현장에 머물고 있는 미국요원들에게 핵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구두로 통보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도 당일 늦게 미국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핵시설 복구 개시의 판단근거와 관련, “불능화 작업시에 제거해 창고에 보관했던 장비들을 옮겨서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됐다”고 설명. 그는 북한의 다른 조치에 대해 “냉각탑 폭파 이후 그동안 잔해가 그대로 있었는데 그 잔해들을 청소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 이 당국자는 “핵시설 복구개시가 6자회담 합의사항 위반임에 틀림없지만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면서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황을 해결하고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북한을 설득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 핵시설 복구 작업 개시” <폭스뉴스>(9/3)

- 폭스뉴스는 북수의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과의 선행조건들을 위반하고 영변 핵시설의 재결합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2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베이징 발로 보도.
- 복구 작업의 동기는 분명치 않으나 소식통들은 어느 정도는 이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를 미루는 데 대한 항의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방송은 설명. 북한은 협상 당사자들이 약속한 지원을 늦추자 불능화 절차를 늦추는 식으로 대응하다 지난 주 처음으로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대북 지원식량 4차분 北 도착” <VOA>(9/5)

- 미국이 북한에 1년간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 가운데 4차 지원분인 옥수수 2만4천500t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5일 보도.
- 3만7천270t의 밀이 지난 6월 29일 북한에 첫 도착한 이후 지난달 4일과 20일 각각 2만4천t의 옥수수와 3만2천500t의 옥수수에 이어 최근 4차분이 도착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식량은 총 11만 8천270t으로 집계됐음.
- 세계식량계획(WFP)의 장 피에르 드 마저리 평양사무소장은 식량을 실은 선박의 정확한 도착 일시와 항구는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의 4번째 지원식량을 실은 선박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 한편 대북 지원식량을 구매, 선적하는 일을 맡고 있는 미 농무부 산하 농업지원청의 하워드 프롤릭 국장은 4차 선적분이 “3일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이미 지원된 식량 이외에 아직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로부터 추가 선적을 위한 발주를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美아태인권협, WFP에 식량배분 철저한 감시촉구(9/3)

- 재미동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회장 유천종 목사)는 2일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한국, 미국 정부 등에 지원을 호소한 데 대해 “식량배분의 철저한 감시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음.
- 아태인권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세계식량계획을 비롯한 한국, 미국의 지원식량이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음을 지적한다”며 “WFP는 그동안 식량분배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이제부터라도 식량지원 감시를 원하는 각국



단체들이 언제든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

● “美-리비아 정상화, 北.이란에 좋은 선례” <미국무부>(9/3)

- 미 국무부는 2일 리비아가 핵무기개발 등 대규모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세계 여러 국가들과 관계정상화를 이룩한 사례는 북한과 이란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과 이란도 리비아와 마찬가지로의 선택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관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손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미국의 최고위 외교관으로는 55년 만에 처음으로 리비아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 북한과 이란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리비아는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과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 선택을 통해 7년 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발전 여지도 많다”고 말했다.

● WFP, 5억弗 규모 대북 긴급 식량지원 나서(9/2)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2일 기아에 허덕이는 620만명의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5억달러 규모의 대북 긴급식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토니 밴버리 WFP 아시아담당 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5억300만달러 상당의 식량 63만을 북한에 긴급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버리 국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WFP의 식량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강원도, 평양의 병원과 탁아소, 유치원, 식량배급센터 등을 시찰하고 베이징으로 나왔다.

다. 중·북 관계

● 中, 북한 정권수립 60돌 기념행사 거행(9/7)

-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가 5일 밤 베이징에서 북한 정권수립 60돌 경축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중국 신문들이 보도. 펑쥘쿠(馮佐庫) 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은 이날 치사에서 “중국 인민들은 형제인 북한 인민들이 지난 60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중심으로 기뻐한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 펑 부회장은 “중국과 북한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중북 우호의 해’로 정했다”면서 “양국 정당과 정부, 인민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북 우호 협력 관계가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진수 주중 북한 대사는 기념사를 통해 “북한과 중국 양국은 앞으



로 공동 노력을 통해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면서 “베이징올림픽이 성공한 것에 축하를 보내며 장애인올림픽도 성공하기를 빈다”고 말했다.

● **中여행업계, 北관광특수 부폰 기대감(9/4)**

- 중국 정부가 북한을 해외여행 목적지로 지정, 자국민의 단체관광을 정식 허용함에 따라 중국 관광업계가 ‘북한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뜨고 있음. 중국 언론은 4일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중국 여행업계의 반응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앞으로 조선(북한)이 또 하나의 해외여행 관심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도.
- 양국 정부는 이전까지 단둥(丹東)이나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등 접경지역에 소재한 여행사에 한해 ‘변경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인 북한 단체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타 지역 여행사들도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中지방정부, 탈북여성에 임시 영주권 부여”<RFA>(9/3)**

- 중국 랴오닝성의 환린 지방정부가 지난해 탈북 여성 2명에게 임시영주권을 발급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방송은 중국내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민간단체인 국제교육증진기금의 창립자인 케이트 조우 미 하와이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탈북여성들은 3년 뒤인 2009년까지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과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라. 일·북 관계

● **北신문 “日, 독도 물개도 약탈”(9/6)**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6일 일본이 한반도 강점기를 전후로 독도에 서식하고 있던 물개를 마구 잡아가는 ‘약탈’을 자행했다고 주장. 북한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1897년 한 일본인 어부가 독도에서 50~60마리를 잡아간 것을 시작으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계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신문은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귀속시킨 뒤 어업가들에게 물개 ‘허가증’을 발급, ‘다케시마(竹島)어렵합자회사’는 같은해 6~9월 1천여 마리, 1906년 5~9월에도 1천919 마리의 물개를 각각 잡았다고 대표적인 ‘약탈 사례’로 들었음.
- 신문은 이 회사가 “그 후에도 해마다 물개를 잡았고 그로 하여 독도의 물개자원은 바다가 나기 시작하였다”면서 “독도의 물개자원을 마구 약탈한 일본 죄행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



● **北, 日에 납치문제 재조사 연기 통보(9/5)**

- 북한이 북일 관계 현안인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 일본측에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이 5일 발표.
- 고무라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새로운 정권의 방침을 지켜보기 위해 설치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4일 받았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북한이 재조사를 늦추기로 함에 따라 모처럼 진전 기미를 보이던 납치문제가 다시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음.
- 일본과 북한은 지난달 선양(瀋陽)에서 열린 양국 정부 실무자협약에서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를 설치, 재조사에 착수할 경우 일본이 대북 제재조치 가운데 인적 왕래 허용 등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北 “日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표기는 재침선언”(9/4)**

- 북한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는 4일 일본 방위성이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넣기로 한 것은 “노골적인 재침 선언”이라고 규탄. 매체는 논평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신성불가침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난폭한 도발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자주권 침해 행위”라며 “일본의 독도침탈 야망과 조선반도 재침 기도가 극히 위험한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

● **日 관방장관 “北에 핵불능화 완료 촉구”(9/4)**

-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4일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일부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능화 작업이 10월 말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북한에 촉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 마치무라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한국 등 관계국과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창고에 보관해온 장치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 역사학회, 日에 간토대지진 학살 사죄 촉구(9/1)**

- 북한 역사학회는 1일 일본의 간토(關東) 대지진 때 일본인들의 조선인 집단학살을 “국가적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런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 역사학회는 1923년 9월1일 발생한 간토 대지진 85주년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가 어떻게 조선인 대학살을 계획하고 악착같이 감행했는가를 고발하기 위해” 비망록을 발표.



● 日 관방장관, 北에 납치문제 조기 재조사 촉구(9/1)

-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1일 북한과의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해 지난달 양국 실무자협약에서 합의한 납치문제 재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음. 마치무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 재조사 위 설치에 대해 “(북한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측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신속하게 뭔가 액션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공화 全大> “매케인, 대북정책 韓·日과 협력”(9/4)

-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매우 신중할 것이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가장 효과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매케인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피트 헉스트라 하원의원(미시간주)이 3일 밝혔음.
-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헉스트라 의원은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 프레스센터에서 연합뉴스 등 한국언론 특파원들과 만나 매케인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음.

●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전략동맹 강화키로(9/3)

- 한국과 미국은 2일 워싱턴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해 양국 현안은 물론 동북아 지역 정세와 범세계적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음.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양국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미 21세기 전략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음.
-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비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추진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방위비 분담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이와 함께 북핵 6자회담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조치인 신고 및 불능화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음. 남북관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역내 국가와의 관계 등 지역문제, 이라크와 아프간 등 범세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나. 미·일 관계

● 부시, 日 차기총리와 협력 기대(9/2)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72) 총리가 전격 사임을 발표한 직후, 차기 일본 총리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은 후쿠다 총리가 사임을 결정한 직후 이를 알았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도쿄(東京)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총리와 함께 여러 문제를 논의했던 때를 주로 상기했다고 말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대통령은 G8 회의와 양자회담에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총리와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즐거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기 일본 총리와 협력을 기대했다”고 페리노 대변인은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미 걸프해안지역 상륙에 따른 재난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텍사스 주(州) 오스틴을 방문했다.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